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네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오늘(9월 첫주일), 교회 설립 42주년

저녁 찬양예배는 가브리엘찬양대의 감사음악예배로



1984년을 전후로 충현교회는 세계 교회 가운데에서도 주목받는 교회로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1983년에는 휘튼선교대회에서 충현교회 부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고 1990년에는 아세아선교대회를 성

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충현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충현기도원에서는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으며 지난 8월 28일(월)부터 8월 31일(목) 저녁까지 부흥사경회를 열었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교회 설립 42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음악예배로 드려진다. 가브리엘찬양대가 주관하여 비발디 작곡의 영광송(GLORIA)을 연주하며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한 마음이 될 것이다.

저희에 이영조 교수, 반주 백금옥 집사, 극중 독창에 서정경, 이미리, 김송희, 김정희 선생이다.

(사진은 충무로 5가의 초창기 예배드려던 처소이다)

장학금 240만원 기탁

익명을 요구하는 어느 성도가 장학금으로 써줄 것을 부탁하며 240만원을 헌금하였다.

장학위원회에서는 매학기 5,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는 장학헌금과 독지가들의 위탁금에서 얻는 이익으로 매학기 지급하고 있다.

교회는 오늘(9월 첫주일)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는다. 1953년 9월 첫주일(9월 6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인현동에 자리잡은 한명덕 집사의 집 2층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충현교회가 시작되었다.

곧이어 충무로 5가 36번지의 터를 정하고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며 오늘의 충현교회는 자라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함께한 김창인 목사(당시 전도사)를 당회장으로 충현교회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1960년대에 이미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해갔고 1979년부터 현재 위치에 교회당 건축을 시작, 1987년 7월 본당 입당예배를 드림으로 10여년 대역사의 끝을 찍고 명실공히 역삼동 충현교회 시대를 열게 되었다. 강남에 새로 교회당을 짓고 이전한

공적으로 치르기도 했다.

김창인 목사 후임으로 신성종 목사가 당회장으로 부임하여 1993년 9월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으며 교회는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틀을 갖추고 각 부문에서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 예수사랑 큰잔치, 충현복지관 완공, 미주성가합창제 참가, 제2교육관 건축, 중국길림성기독교신학원 건립, 예신부(예비신랑신부) 개교, 수도노회에서 동서울노회로 이명 등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계획들을 추진하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서로를 위한다는 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주

사랑부 개교 7주년

교육관 1층에서 작품전시회도

교회학교 사랑부가 개교 7주년을 맞으며 자체 축하예배

및 축하행사를 가졌다. 8월 마지막 주(8월 27일)로 개교 7주년을 맞는 사랑부는 서로 축하하며 큰 발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50여명의 전 사랑부 학생이 참가하여 한 부분씩 그려

짜맞추어 완성한 훌륭한 그림을 (사진) 교육관 1층 복도에 전시하며 기쁨을 함께 하고 있다. 이 전시에는 사랑부 학생들의 사진도 전시되어 있다.



제4회 국제 컴세미나 기도 제목

9월 20일(수) 부터 ~28일(목) 까지

1. 강사와 책임을 맡은 일꾼들이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2. 회교 지도자들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전파된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회교권 지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주옵소서.
3. 초청된 이집트(28명), 수단(4명), 터키(5명) 목회자들이 은혜와 성령충만으로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게 하옵시고,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교권 복음화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려 선교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4. 컴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교권 선교의 많은 장애물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회교권 복음화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5. 금번 컴세미나를 통하여 충현의 가족들에게 세계선교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선교의 불을 붙여주옵시고, 좋은 선교사들이 배출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6. 컴세미나 기간 동안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불타는 소명의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7. 회교권 지역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주옵소서.



충현기도원 부흥사경회

교회 설립 42주년을 기념하며 충현기도원에서는 부흥사경회를 가졌다. 지난 8월 28일(월)부터 31일(목) 저녁까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임종만 목사(물금교회 당회장)의 독특한 강의로 구원론에 대한 진수를 만끽한 성도들은 참으로 유익한 시간들이었음을 간증했다. 앞으로도 이런 류의 부흥사경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들이다.



충현강단

●시편 강해 2●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 2:1-12)

시편 1편이 개인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2편은 역사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는 메시아 왕국의 설립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다윗이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세상 나라들의 반역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반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세상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본문은 이것을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1절)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문장 서두에 언급하여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다섯 가지로 이 세상이 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1-3절).

첫째는 “열방이 분노하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열방은 계속해서 분노합니다. 감정적인 분노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둘째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헛된 일을 합니다. 허무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 중에서 가장 허무한 일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복을 줄 줄로 착각하여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거기에 다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서로 꾀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연합체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나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 학문적으로 대적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은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유를 얻자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러한 대적의 목적은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관습과 제도와 모든 윤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들은 죄악된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신앙에서

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이처럼 기를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분노하면서 대적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본문에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근본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자유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자유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만약의 경우 자유가 참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결국 우리를 허방방탕하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유는 바로 방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들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2.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 이와 같이 세상 나라들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4절) 현대공동번역에 보면 ‘가소로워서 웃으시리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저항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구더기가 홍수를 막겠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둘째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5, 6절) 이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선포요, 메시아 통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사 45장). 이와 같은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 그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7절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부터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된 구절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지명하셔서 예수님이 등극하게 되고 그가 통치하게 된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또 저들처럼 허사를 경영하고, 서로 꾀하고,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옛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선포입니다. 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구절은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메시아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에게서 받은 왕으로 세우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게 구하라”(8절)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도다”(9절) 여러분, 예수님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죄악을 범하고, 불의를 행하는 세상 나라를 철장으로 다스리는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3. 세상 나라가 사는 비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면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할 때에 세상의 반역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땅끝까지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리석은 일, 세상의 허사를 경영하는 일, 서로 꾀하는 일들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이 교훈을 받을지어다”(10절)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멸며 즐거워할지어다”(11절) 둘째로 메시아에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12절) 입맞추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인사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영접하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서술형과 명령형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6절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며 서술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이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서술형입니다. 그런데 11절은 ‘경외함으로 섬기고 멸며 즐거워할지어다’라며 명령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기고 멸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멸며 즐거워할지어다’ 예배의 즐거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왕국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술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명령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또 저들처럼 허사를 경영하고, 서로 꾀하고,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옛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5회 충현올림픽 앞으로 한 달 남아

10월 3일(화), 한양대 종합운동장에서, 활발한 각 연합교구별 모임 및 출전 계획
각 부서별 임역원 확정코 모든 준비 순조롭게

제5회 충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매 주일 모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계획을 확정해 나가고 있다. 이미 각 팀을 결정하고 각 팀에 따른 자리 배치, 색깔 등을 결정함에 따라 각 팀들은 교구연합모임을 갖고 총감독, 감독, 응원단장 등을 선발해 나가고 있다.

올림픽은 개최예배에 이어 입장식으로 막을 열게 된다. 입장식에는 원로장로들이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하고 뱃별 전파, 일신여상 밴드부의 입장, 공연 그리고 유치부 어린이들의 매스게임, 예바다·사랑부의 즐거운 게임, 점심시간을 이용한 각 모임의

공연, 각 팀별 응원경연대회 등의 큰 볼거리를 제공하여 올림픽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을 것이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함께 하나됨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 내용도 단순한 순위 경쟁만이 아니고 협동, 단결, 일체감 조성 등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종목들로 짜여졌다.

금번 올림픽의 시종을 모두 볼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세부사항까지를 모아보았다.

I. 기본계획서

1. 목적

- 1) 전 교인(새신자, 태신자, 전도 대상자 포함)의 친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 2) 교회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 3) 신앙의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2. 일시

1995년 10월 3일(화)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3. 장 소 /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

4. 참가자 / 증현교회에 등록된 전교인 및 태신자, 전도 초청대상자
5. 주제성구 /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 가노라(빌 3:14)
6. 주제찬송
1) 전 교인 - 옴은 길 따르라 의의 길 (265장)
2) 탐별
7. 예산 / 총액 52,000,000원
8. 매점 운영 / 대학부에서 전담

9. 대회 조직/ 8월6일 <주간충현> 참조
분과장 / 차신득

10. 팀구성 및 색깔

- 1) 팀구성 및 색깔
 - 제1팀 1, 4, 12교구 / 믿음팀(황색, 정금과 같은 믿음)
 - 제2팀 2, 11, 13교구 / 충성팀(녹색, 봉사와 성숙)
 - 제3팀 3, 5, 10, 14교구 / 사랑팀(홍색, 그리스도의 보혈)
 - 제4팀 6, 7, 8, 9교구 / 소망팀(청색, 천국의 소망)
- 2) 연합교구 팀별명칭, 색깔, 응원단석 위치, 입장순서 등은 95년 8월 13일 추첨에 의해 결정했다.
- 3) 각 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하여 95년 8월 27일(주일)까지 조직위원회에 보고했다.
 - 단장 1명, 부단장 2~3명, 경기총감독 1명, 경기장감독 1명, 응원단장 1명, 응원단원 10명 이상, 선수동원요원 10명 이상, 질서유지요원 10명 이상, 기록 및 연락요원 2~3명
- 4) 응원단석 위치(아래의 도표 참조)

것(4 = 4열종대, 7 = 7열종대)

◆ 입장식 선수단으로 진행/ 대학·청·장년 남 100명, 여 100명(인솔단원 제외)

②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1) 팀별로 특별히 제작된 대형 비닐과 풍선을 지급한다.
- (2) 시작신호와 함께 전 팀원이 협력하여 풍선을 분다.
- (3) 풍선을 비닐 안으로 넣는다.
- (4) 풍선을 넣은 후 비닐 입구를 묶는다.

◆ 제4회 충현올림픽과 동일

③ 아름다운 세상 들어 올리기

- (1)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풍선을 운동장 중앙에 놓는다.
 - (2) 시작신호와 함께 이것을 들어 위로 던져 올린다.
 - (3) 가장 높이 들어올리는 팀이 이긴다.
- * 들어올리는 사람은 10명으로 제한한다.

◆ 교역자·장로로 팀 구성 10명

④ 축하박 터뜨리기

- (1) 축구장 각 모서리에 축하박을 설치한다.
- (2) 시작신호와 함께 선수들은 오자미를 축하박에 던진다.
- (3) 축하박을 먼저 터뜨리는 팀이 이긴다.
- (4) 축하박을 그 자리에 장식용으로 세워 놓는다.

⑤ **여리고 용사들 / 사전에 선수를 선**

발한다

- (1) 6사람이 발포 고무판으로 제작된 6구멍 짜리 지네발을 신는다.
- (2) 시작신호와 함께 반환점을 돌아오되, 여리고 용사처럼 한 손에 나팔을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불면서 나간다.
- (3) 나팔과 항아리로 다음 조와 교대한다. (7바퀴 릴레이 경기)

◆ 1조: 교역자 · 장로 2조: 청 · 장년 남

3조: 청·장년 여 4조: 새신자 남
5조: 새신자 여 6조: 청·장년 여
7조: 청·장년 남

⑥ '총현교회' 건축

- (1) 각 팀별로 흰색과 청색으로 된 박

II. 진행계획

구분	시간	소요	행사내용	연출	비고	선수인원	
여는 올림픽	올림픽 준 비	08:30 ~09:00	팀별집합/좌석배치 인원점검/운동구지급 입장식 준비/정렬	팀색깔 부각 팀별 개인별 각팀 선수단			
	개 회 예 배	09:00 ~09:20	20분	개회예배			
	입장식	09:20 ~09:50	30분	입장식 안내			
폐는 올림픽	총 현 올림픽 1	09:50 ~10:00	10분	응원전1			
		10:00 ~10:10	10분	(1) 십자가 군병	*입장선수/ 대학(청),장년부	명령판넬	대학(청)·장년 남녀 각 100명
		10:10 ~10:30	20분	(2)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전 교인		전교인 참여
		10:30 ~10:50	20분	(3) 아름다운 세상 올리기	교역자,장로		교역자· 장로 합 10명
		10:50 ~11:10	20분	(4) 축하박 터뜨리기	유치,초등소망	오차미팀별 30개	유치,초등소망전원
		11:10 ~11:30	20분	(5)여리고-용사들	교역자,장로 청장년,새신자		남24명, 여18명
		11:30 ~11:50	20분	(6) '총현교회' 건축	새신자	박스,키팅쉬트	새신자전원 (태신자)
		11:50 ~12:00	10분	(7) 성경퀴즈 O, X	전교인	문제판넬	
	점 심	12:00 ~13:00		신청공연		12:20-12:50	
	총 현 올림픽 2	13:00 ~13:30	30분	응원전2 (8) 매거리축구	청장년,대학,고등,중등, 교역자,장로	반외경기 축구,농구,배구,탁구	연합팀별 남·여 각 4명 축구5, 배구2
		13:30 ~13:50	20분	(9) 지경 넓히기	사람부/예바다부	청후퇴집기	연합팀별
		13:50 ~14:10	20분	(10) 한마음 줄넘기	대학,청,장년	단체줄넘기	남2 여5명
		14:10 ~14:30	20분	(11) 믿음의경주	초,중,고등부	초 50m, 중,고100m	학년별 남·여 1명
		14:30 ~14:50	20분	(12) 출애굽 경기	여교역자,권사 청장년,새신자	6인1조 장애물(6조)	남12명 여24명
		14:50 ~15:10	20분	(13) 무지개 따오기	대학,청,장년	줄다리기	대학,청,장년 남·여(50명)
	15:10 ~15:30	20분	(14) 자연보호	전교인			
	15:30 ~15:50	20분	(15) 1200m계주	남녀혼성		남·여(3명)	
맺음	폐회식 15:50 ~16:00	10분	성적발표/시상 폐회예배 폐회선언/폐회				

III. 진행 세부계획/약술

응원전1

- 응원전 강화: 팀별 엠프 사용, 공동 응원도구 지급
- 선서문: 교회적인 문안으로
- 캐릭터: 새신자와 어린이에게 선물 제공
- 축하박: 예수사랑(홍), 충현교회(청), 할렐루야(녹), 천국일꾼(황)
- 연합팀: A팀 = <믿음·충성>
B팀 = <소망·사랑>

① 십자가 군병

- (1) 입장선수들을 그 자리에 정렬시킨다.
 - (2) 본부석에서 숫자가 새겨져 있는 명령판넬을 들어올린다.
 - (3) 선수들은 명령판넬의 숫자대로 정렬을 신속하게 한다.
 - (4) 심판은 맡은 팀의 정렬이 완벽하게 끝나면 깃발을 올린다.
- * 명령판넬 : 아바리아 숫자를 새긴

믿음팀 좌석	본부석	소망팀 좌석
본부석에 앉은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10년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입니다."		
총성팀 좌석		사랑팀 좌석

스를 지정 숫자만큼 지급.

(2) 시작신호와 함께 모자이크식으로 박스를 세워 대형글씨를 만든다.

(3) 정확히 빨리 만드는 팀이 이긴다.

(4) 글자 선택은 당일날 추천한다.

◆ 각 팀 새신자 중 회당자 전원/ 양면 글씨로 구성, 뒷면은 거울 글씨 형성

⑦ 성경퀴즈 O, X

(1) 상식적이면서 알송달송한 성경퀴즈와 폭소퀴즈를 맞추기.

(2) 진행방법은 O, X 퀴즈 맞추기 요령.

◆ O, X 퀴즈 요령, 전원참여

응원전2

신청공연 12:20~12:50 신청부서에 한에 시간을 할애

⑧ 때거리 축구

(1) 2개팀으로 팀 구성을 한다(연합팀).

(2) 혼성으로 동시에 진행한다(연합팀, 남 30명, 여 30명).

(3) 남 = 축구공 5개와 럭비공 2개, 여자 = 배구공 5개

◆ A팀(믿음·충성) 노락색 헤어밴드, B팀(소망·사랑) 파랑색 헤어밴드

번외경기

축구 / 대학·청장년

농구 / 중등부 연합팀, 고등부 연합팀

배구 / 대학·청장년 혼성 9인조(남 6명, 여 3명)

피구 / 여성 청장년 30명

⑨ 지경 넓히기

(1) 바닥에 청·홍 양면판을 200장을 100장은 청색으로, 100장은 홍색을 깔아 놓는다.

(2) 시작신호와 함께 자기팀의 색깔로 끊임없이 뒤집는다.

(3) 제한시간 내에 경기를 치른 후 101개 이상으로 만든 팀이 이긴다.

◆ 1. 사랑부 연합팀·에바다부 연합팀으로 구성하여 1회씩 진행한다.

2. 사랑부는 안내를 해주는 교사의 도움으로 사랑부원이 경기를 치른다.

3. A팀(믿음·충성) 노락색 헤어밴드, B팀(소망·사랑) 파랑색 헤어밴드

⑩ 한마음 줄넘기

(1) 긴 줄넘기 줄로 단체 줄넘기를 넘는 요령으로 진행

(2) 연습 후 1개팀씩 운동장 중앙에서

오늘(9월 3일)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5회 충헌올림픽 설명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합니다.

실시

(3) 2사람이 돌리고 5사람이 넘는다.

◆ 1. 대학·청장년 중 남 2명이 단체 줄넘기 줄을 넘기고 여 5명이 넘는다.

2. 이때 각 팀의 응원단은 넘을 때마다 큰 소리로 넘는 숫자를 센다.

3. 숫자를 세는 소리가 소음 측정기로 100데시벨을 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4. 제한시간은 2분이고, 이 시간 내에 최대한 넘는다.

⑪ 믿음의 경주

(1) 초·중·고등부 단거리 달리기

(2) 학년별 성별 진행

◆ 각 학년 남 1회 여 1회

팀별 남 12명, 여 12명(학년별 성별 24회 진행)

⑫ 출애굽 경기 / 사전에 선수선발을 한다.

(1) 6사람이 1조가 되어 6인조 바통을 잡는다.

(2) 시작신호와 함께 트랙에 깔려 있는 장애물을 6사람이 동시에 통과

◆ 400m 트랙을 1/2바퀴씩 3회 돈다.

1조: 여교역자 2조: 새신자 남

3조: 권사 4조: 청·장년 여

5조: 새신자 여 6조: 청·장년 남

⑬ 무지개 따오기

(1) 운동장 중앙에 줄다리기 줄을 7개 깔아 놓는다.

(2) 각 팀의 선수들은 축구 골대 안으로 들어가 대기한다.

(3) 시작신호와 함께 중앙에 깔려 있는 줄을 잡아 당겨 자기팀으로 끌고 온다.

(4) 4개 이상 갖고 오는 팀이 승리.

(5) 경기시간은 1분으로 한다.

(6) 상대팀이 끌고간 줄은 다시 가져올 수 없다.

◆ 대학·청·장년 남 50명, 여 50명

⑭ 자연보호

(1) 제한시간 내에 지정된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모으는 팀이 1등.

(2) 어른들은 쓰레기를 모아주고, 어린이들이 운동장에 있는 쓰레기 수집장소로 쓰레기를 나른다.

◆ 어린이 전원에게 선물을 주는 방안

⑮ 1200m 계주 / 1/2바퀴씩 돈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9/4(월) 세계성령화운동본부 조찬기도회 축도

· 신성종 목사: 9/4(월) 목회자세미나 개강예배 설교 및 강의, 감리교 목사, 장로회 세미나 강의

2. 충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해외목회자초청(COME)세미나(9월 20~28일)와 충헌올림픽(10월 3일)이 온전히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치루어지도록 인도하소서.

8. 각종 재난과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다시는 이와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 남 3명, 여 3명으로 하고 뛰는 순서는

여 = 1, 3, 5번으로 본부석에서 출발,

남 = 2, 4, 6번은 응원석에서 출발.

IV. 중요 준비 일정표

7. 20(목) 조직위원(분과장, 교역자) 모임

7. 26(수) 조직위원 현장 답사

7. 30(주) 팀 및 실행조직(부장 등) 구성

8. 2(수) 인선 발표 및 대회 진행표 확정(정기당회)

8. 11(금) 조직위원 및 실무요원 현장 답사(한양대 운동장 최종 결정)

8. 13(주) 조직위원 및 실무 부서장 연석모임(충헌올림픽 제1차 설명회)

연합교구 팀별 팀명칭 및 색깔, 응원

단석 위치 추천, 대외기관 교섭

8. 13(주)~27(주) 올림픽 표어공모, 충헌올림픽 피켓걸 모집

8. 18(금) 각 분과별 모임(각 분과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예산 편성)

8. 27(주) 각 팀 조직 완료

9. 3(주) 충헌올림픽 제2차 설명회(교구연합 모임시, 설명내용을 주간충헌에게게), 올림픽 표어 당선작 주간충헌에 발표, 각 팀별 조직 완료, 매주일 후보, 주간충헌에 올림픽 행사 후보

9. 10(주) 충헌올림픽 피켓걸 선발, 홍보물 제작 등 각 분과별 준비 상황 총 점검 리스트 작성

9. 12(화) 조직위원, 각 팀 단장, 경기 총 감독 연석회의(각 팀별 조직 및 준비 확인, 심판지침서 설명, 대회진행안내, 기타)

9. 17(주) 각 분과별 준비상황 확인(팝플렛 인쇄, 홍보물 인쇄, 봉사자 명단, 각종 준비물 준비상황점검)

9. 24(주) 각 팀별 지원상황 점검(예산 지원, 안내서, 기념품, 소모품 등)

10. 1(주) 최종 종합 점검(대회진행 시나리오, 현장점검, 시상품 준비, 의료품, 각종지원장비)

10. 2(월) 현장준비 점검 및 경기장 시설설치 작업(방송시설, 경기라인설치, 홍보장치, 만국기, 프랑카드, 텐트, 의자, 기록관, 각종 운동경기 보조기구, 기타)

10. 3(화) 충헌올림픽 개최

10. 13(금) 충헌올림픽 평가회의

V. 제5회 충헌올림픽 백서 발간

제5회 올림픽 당일(10월 3일), 점심 시간에 갖게 되는 특별공연에 출연하기를 희망하는 그룹이나 개인은 홍보분과(☎ 552-8200 교환 518, 조동원 목사)로 9월 24일(주일)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2교육관 신축공사 중간보고

1996년 4월에 완공될 예정, 약 60억원 정도의 공사비 필요

할 램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교회 한쪽 구석에는 여러분의 정성어린 헌금과 기도의 결실인 제2교육관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충헌교회는 설립 10주년이 되면서 '전국일꾼 양성'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기수들을 양성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뒀습니다. 새성전을 건축할 당시 본당보다 먼저 제1교육관을 신축한 것에서도 그러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한 걸음 앞당기기 위해서 제2교육관의 신축을 위한 비자금을 홀리고 있습니다.

제2교육관은 지상 2층 지하 4층으로 아담하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되었고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까지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골조공사의 90%가 진행되었으며, 전체공정으로 보면 50%가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사진) 제2교육관이 완공되면 현재 부족한 교육공간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교회학교의 분반공부에 필요한 교실들과 각종 모임을 위한 장소가 더 늘어남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교육관은 1996년 4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약 6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제2교육관의

건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 대 원(장로, 건축위원장)

